



# 고대안암병원뉴스

##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NEWS

발행인 | 김창덕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 전화 | 1577-0083 · Fax | 02)920-5770 · 홈페이지 | http://anam.kumc.or.kr

2010  
November

# 11

발행 | 11월 22일 · 월간 · No.44

## 高大의료원 "글로벌 메디컬로 GO!, GO!!, GO!!!" 첨단의학센터 및 신의학관 건립, 1등 전략으로 간다!



## '국내 몇 위?' NO!! NO!!, 세계와 겨뤄 병원수준 평가받겠다 뉴 비전내용 선포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성공도약 다짐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은 11월 16일 오후 6시,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대규모 비전선포식을 갖고 힘차게 새 출발했다.

1,200여명의 교직원이 모인,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고려대의료원은, 미래가치와 전략적 경영의 기본이 되는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 선포함과 동시에 향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KUMC, VISION 2020" 문구

이날 발표된 내용은 고려대의료원의 미션과 비전, 5대 핵심가치, 그리고 기관별 비전이다. 각 내용 중 우선, 의료원 미션은 '생명을 존중하는 보건의료의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최첨단의 진료를 제공하며, 혁신적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응용발전시켜 인류사회에 공헌한다' 로 정했다.

비전은 '창조적인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원' 으로, 5대 핵심가치로는 '첨단(state of the art), 혁신(innovation), 창의성(creativity), 국제화(globalization), 효율화(efficiency)' 로 표현했다.

또한, 의료원 산하 기관별 비전으로는, 안암병원이 '첨단

연구와 최상의 의료를 실현하는 글로벌 리더병원', 구로병원은 '믿음주는 환자중심 병원', 안산병원은 '첨단의료를 선도하는 서해안시대의 중심병원', 의과대학은 '세계고대 천년을 향한 개척정신으로 최고의 첨단의학을 구현하는 참의사를 양성한다', 보건과학대학은 'GLOBAL 50 IN HEALTH SCIENCE 2020' 로 정했다.

### "KUMC, 비전달성 중점추진전략"

고려대의료원은 안암·구로·안산병원,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메디컬컴플렉스를 구현해 국내의료계를 리드하고 있다. 현재, 2,600여 병상을 운영하는 메머드급 의료기관으로 성장한 고려대의료원은 안암병원에 500여병상 규모의 첨단의

### 고려대학교 의료원 VISION 2020

**고려대학교 의료원** ▶ **미션** : 생명을 존중하는 보건의료의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최첨단의 진료를 제공하며, 혁신적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응용발전시켜 인류사회에 공헌한다.

▶ **비전** : 창조적인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원  
▶ **핵심가치** : 첨단, 혁신, 창의성, 국제화, 효율화

**안암병원** ▶ **비전** : 첨단연구와 최상의 의료를 실현하는 글로벌 리더 병원

▶ **핵심가치** : Be Expert  
• 탁월한 연구 (Excellence in the research)  
• 환자제일주의 (Patient as a priority)  
• 글로벌인재 양성 (Education of global leaders)  
• 사회적 책임 (Responsibility for society)  
• 협력과 소통 (Teamwork & communication)

▶ 2면에 계속

### 거대규모의 대학 의학발전기금기부

10.09.24	이순희	₩ 100,000,000
10.09.24	장성훈	₩ 100,000,000
10.10.04	성세의료재단 (안병문)	₩ 1,000,000,000
10.10.05	채양석	₩ 10,000,000
10.10.07	김재선(학부모)	₩ 13,500,000
10.10.12	이수월	₩ 10,000,000
10.10.15	최정호	₩ 3,000,000
10.10.18	정희용	₩ 10,000,000
10.10.18	익명	₩ 100,000,000

10.10.29	노호상	₩ 10,000,000
10.10.29	김은석	₩ 10,000,000
10.10.29	황동조	₩ 10,000,000
10.11.04	김해준	₩ 10,000,000
10.11.11	김병수	₩ 12,000,000
10.11.16	최재욱	₩ 10,000,000
10.11.16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 10,000,000
10.11.16	함병주	₩ 10,000,000
10.11.18	최형섭,김정연	₩ 100,000,000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 기간 : 2010년 9월 24일~11월 18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 1면에 이어

학센터(최고, 지하3층\_지상15층)를 건립해, 향후 3,100여 병상을 보유할 계획이다.

최근,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병원은 JCI 인증획득, 대한민국경영혁신대상수상,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현존 최고 암치료기 토모테라피 가동, 국제적인 수준의 로봇수술성과, 하버드의대와의 노인병연구교육센터 MOU체결, 부정맥센터 St. Jude Medical로부터 Center of Excellence 선정 등의 다양한 업적으로 의료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고려대의료원은 경쟁상대를 해외 유수의 의료기관으로 정해 글로벌 정책을 바탕으로 경영을 실천해 갈 계획이다.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다학제간 융합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가시스템 및 표준업무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병원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특히, 고대의대는 신의학관을 2012년 상반기에 완공해 교육과 연구 뿐만 아니라 다가올 의료산업화 시대의 거점 교육기관으로 준비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신의학관은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면적 21,561㎡(6,522평) 규모로, 현재공정율 25%를 보이고 있다.

**"KUMC, 전략과제" 실천해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도약!**

더 나아가 고려대의료원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자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최첨단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스타교수 영입을 위해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임용 전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파격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타 병원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유전자치료와 재생의료의 개발 등을 통해 난치병을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고려대의료원은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위해 연구중심병원으로 재도약 한다는 복안이다. 첨단의학센터 건립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의료산업화를 추진해 세계적인 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장기플랜을 마련했으며, 중개연구를 통한 산업화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할 예정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의료원은, 국제적인 보건사업을 수행하기위해, 국제 재난지역 구호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의료 후진국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의학교육 향상 및 의료인 육성에 힘쓰는 한편, 의사를 위한 연구공간을 확대하고, 전공의 해외연수를 대폭 확대하고, 의대생을 위한 기숙사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물류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병원운영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직원의 창의성을 높여 효율적인 병원운영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이번 VISION 2020 비전선포는 선언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매우 구체적인 전략시행을 의미한다. 먼저, 의료원의 기념비적 사업인 첨단의학센터 건립을 조기에 추진해 3,000 병상이 넘는 메머드급 의료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며 "질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뤄내 5년내 세계 Top수준의 특성화센터를 10개 이상 육성하고 의료원 산하 모든 병원의 JCI인증 획득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이제, 1위전략 세계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 고

강조해 의료원 발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고려대의료원은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눈부신 성과들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왔음을 그 누구보

다 잘 알고 있다. 미래 사회 핵심 분야가 될 세계 의학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고대의료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인사말**

오늘 'VISION 2020' 고려대학교 의료원 비전선포식을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흔들림없이 우리 의료원의 새로운 도약과 변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고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비전선포식을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돌이켜보면 1938년부터 시작된 우리의 역사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기나긴 역사속에 숭한 어려움과 제약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술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실현해내기 위한 불멸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의료혜택을 베풀기 위한 노력으로 설립된 안암, 구로, 안산병원은 이제 총 2,500여병상, 최첨단 의료장비, 핵심의료진 400여명을 비롯한 5,500여 교직원이 세계적인 환자중심의 명품 의료서비스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고려대의료원은 JCI 인증 획득,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수상,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대한민국경영혁신대상, 글로벌의료마케팅 대상 수상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인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메디컬 브랜드의 이상을 과감하게 펼쳐 왔습니다. 어찌보면 기적과도 같은 이러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던 교직원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새로운 각오와 도전을 담은 비전을 선포하고, 의료원의 발전적인 미래를 그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려대의료원은 이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첨단, 혁신, 창의성, 국제화, 효율화라는 5대 핵심전략을 통해 보다 더 먼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VISION 2020' 비전선포는 선언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매우 구체적인 전략시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의료원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선포의 여세를 몰아, '코리아' 와 '고대' 의 이름으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끊임없는 혁신과 개척정신은 고려대의료원의 미래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천 5백여 고려대의료원 교직원 여러분! 고려대의료원은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려 합니다. 창조적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손창성



축사를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



비전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손창성 의무부총장



고려대 안암병원 첨단의학센터 조감도

# '고대 안암병원 = Green Hospital'

[ 특 집 ]



고려대 안암병원이 25일 오후 5시 병원 8층대강당에서 '금연선포식' 을 갖고 병원 전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종합병원 구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한 것은 서울에서는 최초이며, 전국에서는 7번째다.

안암병원은 원내외 전구역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각과 각실별로 금연지킴이를 임명하고 적극적인 금연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관내 보건소와 연계해 매주 한 차례 교직원,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다. 병원측은 단계적인 금연캠페인을 통해 금연문화 정착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덕 고려대 안암병원장은 "병원에서의 금연운동은 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직원 여러분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면서, "금연은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 더 나아가 동료들과 환자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실천임을 명심해달라" 고 당부했다. 금연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된 이기형 기획실장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병원 환경속에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금연을 선언한 교직원 여러분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강조했다.



## 금연 성공을 위한 네가지 TIP

- 주변 사람과 금연을 약속한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금연 사실을 널리 알리면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금연 의지를 지속적으로 다질 수 있다.
- 흡연 욕구에서 벗어나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다.  
독한 마음만으로 흡연 욕구를 줄일 수 없다면 나만의 극복 방법을 찾아보자. 물을 마신다거나 사탕이나 껌 등으로 흡연 욕구를 줄일 수 있다.
- 술자리를 가급적 피한다  
알코올 섭취는 흡연 욕구를 높인다.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흡연 욕구를 더 자제하기 어려운 만큼 금연 초기에는 가급적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금연클리닉 등을 방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금연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데 도움이 된다.

# “병원 발전위한 기부의 손길 잇달아...”

[ 포커스 I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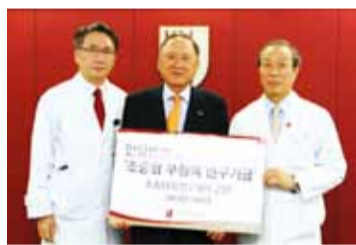
## 조중형 웅진그룹 고문, 안암병원에 부정맥 연구기금 5억 쾌척



고려대의료원은 10월 15일 오전 11시 고대 총장실에서 성세의료재단 안병문 의료원장으로부터 '의학발전기금' 10억원을

기부 받았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고려대 이기수 총장, 손창성 의무부총장, 서성욱 의대학장, 이상학 의무기획처장, 이혜원 의무교학처장과 기부자 안병문 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 의료원장은 “작년 딸 아이의 의전원 입학을 계기로 고대의료원과 의과대학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진심으로 고려대의료원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부한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길 기원한다” 고 기부약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기수 총장은 “3대째 의사의 길을 걷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좀 놀랐다. 기부자님의 이번 성원은 세계로 웅비하는 고려대의료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안병문 의료원장님은 공단이 밀집해있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인술을 펼치시는 훌륭한 의료인이신데, 이번에 어려운 결정을 하시게 되어 정말 감사드린다. 최고의 의료인재 양성은 물론, 최선의 진료 및 의학연구 등을 통해 의료원장님의 참 뜻에 반듯이 보답하겠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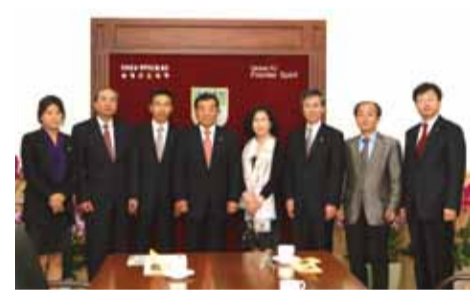
## 성세의료재단 안병문 의료원장, 고려대의료원에 10억원 기부



고려대 안암병원은 10월 13일 조중형 웅진그룹 고문으로부터 부정맥 연구기금 5억원을 전달받았다.

난 2006년에도 치료가 없어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정맥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2천만원의 자선기금을 선뜻 기부한 바 있는 조중형 고문은 이번에는 부정맥 연구기금 5억원을 기부하며 심장수호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조중형 고문은 본인 자신도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때문에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 김영훈 교수에게 2006년 시술까지 받았던 부정맥 환자다. 시술이후 지금은 상태가 호전되어 해외출장, 운동도 거뜬할 정도로 정상이지만 금방이라도 심장이 멎을 듯한 부정맥의 고통과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조중형 고문은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심장이 갑자기 부르부르 떨리던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면서, “부정맥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하루빨리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부정맥이란 질병을 완전정복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영훈 교수는 “전해주신 고문님의 뜻과 의지에 감사드린다. 더욱 깊이있는 연구를 통해 난치성 부정맥 치료에 다시 한번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高大법대 장성훈 교수, 고려대의료원에 1억원 쾌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장성훈(51세, 77학번) 교수가 10월 1일 오

전 10시에 고대 총장실에서 '의학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고려대 이기수 총장, 손창성 의무부총장, 서성욱 의대학장, 정진택 대외협력처장, 이상학 의무기획처장, 이혜원 의무교학처장과 장성훈 교수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기수 고대 총장은 “모교를 사랑해주시는 장성훈 교수의 애정에 감사드린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계적인 명문대로 도약하고 있는 고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손창성 고대 의무부총장도 “모교 의료원을 위한 장성훈 교수의 사랑이 담긴 기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의료인재를 배출하고 선진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소중한 기여가 될 것” 이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장성훈 교수는 “고려대의료원과 의대의 큰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평소 모교 병원을 위해 기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번에 그 생각을 실천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는 고려대의료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고 기부의 취지를 말했다.

## 안암병원, 지역주민 건강 위해 성북구청과 협약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이 서울시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과 함께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11월 9일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창덕 고려대 안암병원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과 건강강좌,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며, 전염병 발생 위기상황 시 안암병원에서 성북구 보건소에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안암병원은 이어 열린 '내 고장 성북사랑 운동' 협약식에도 참석해 일상 속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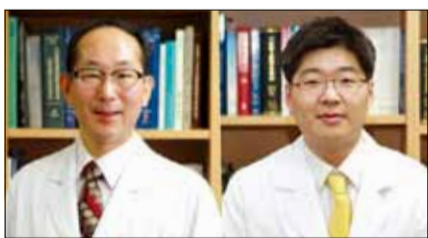
## 안암병원 신규간호사의 성장이야기




간호부(부장 이은숙)는 10월 29일(금) 신규간호사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마련했다. 5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사한 병원 생활 3~4개월차 신규 간호사 21명을 초청해 병원 생활의 고충과 애환을 내려놓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그간 병동에서의 경험했던 여러 에피소드와 현재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생각하여 간호사로서의 꿈과 포부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신규

간호사는 "함께 병원생활을 시작한 입사동기들과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이니 처음 입사하던 날이 생각났다. 그 동안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기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첫 입사했던 날의 포부를 잊고 나태해졌던 나를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규 직원에 대한 병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살갓으로 느낀 만큼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안암병원 간호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진해야겠다" 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간호부는 '신규간호사와의 아름다운 만남' 이라는 타이틀 아래 간호사의 애사심을 높이고 간호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호사들과의 만남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부인과 김탁·박현태 교수팀, 국내 학술대회 최우수연구상 수상



안암병원 산부인과(과장 김탁) 김탁(왼쪽)·박현태(오른쪽)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이 국내 저명학회에서 호평받으며 '최우수 연구상' 을 수상했다. 김탁·박현태 교수팀은 2010년 10월에 50여개 연구논문이 발표된 가운데 열린, 제 40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와 대사증후군' 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이와같은 수상을 했다. 또한, 김탁 교수는 2010년 10월 '폐경 여성에서 칼슘복용이 대사증후군 발생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를 대한폐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해 '2010 학술대상' 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고대 산부인과 의료진은 그간 높은 연구성과를 보여왔다. 송재운 교수와 안기훈 교수는 지난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고, 안기훈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 비뇨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박현태 교수 지난 5월에 열린 대한생식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산부인과학 분야에서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고려대 안암병원은 뛰어난 임상역량을 바탕으로 최고의 연구성과들을 발표하고 있어, 산부인과 질환 치료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있다. 

## 그라시아스의 음악선물




안암병원에 사랑과 희망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안암병원은 11월 12일 오후 5시 병원 대강당에서 환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학생들

## 고려대의료원, 윤홍노 국제진료협력단장 위촉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은 10월 13일 윤홍노(고대의대 28회) 고대의대 미주 교우회장을 '국제진료협력단장' 으로 위촉했다. 신임 윤홍노 국제진료협력단장은 고대의대 28회 졸업생으로 고대의대 미주 총

동창회장, 고려대학교 워싱턴 교우회장 등을 맡아 재미 고대교우 및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향후, 윤 단장은 미국 정부관계자 및 보험사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대해 실질적인 해외환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의료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조언은 물론 고려대의료원의 미국진출 사업도 도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진료협력단장 위촉은 고려대의료원 최초이며, 임기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년간이다. 

## 고대의대, '제3회, 심혈관 학생심포지움' 열어




고대의대(학장 서성욱)는 11월 6일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대강당에서 의사, 의대생, 간호사 및 관련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회 심혈관 학생 심포지움' 을 개최했다. 고대의대 본과 재학생 12명(본4, 박윤지, 허지만, 최재형, 김주현 등)이 다양한 연계를 발표했으며,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이철환 교수가 특강을 실시한 가운데, 의대 나홍식 교수, 고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임도선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이 대거 함께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정상적인 혈관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기본적인 내피세포 및 평활근 세포의 기능, 동맥경화증의 주요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혈전형성과 면역반응 등을 망라하여 리뷰했다. 또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항동맥경화제제의 적용과 혈관기능을 기능하는 검사법 및 항혈소판제제의 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의대생들이 혈관 생물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은 연자로 참석한 의대생들이 이른 봄부터 무더운 여름 내내 함께 모여 평소 의학도로서 방대한 양의 학업에 쫓기면서도, 짧은 방학기간과 바쁜 병원 실습시간을 쪼개어 준비한 것이기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저명인사 릴레이 특강, 인기 '짱'



안암병원이 지난 9월부터 개설한 정기 '교직원 교양강좌'가 교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월 29일 제 1회 교양강좌에서는 MBC 이재용 아나운서를 강사로 초청해 '자신을 가꾸는 성공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이 이루어진데 이어, 한달 뒤인 10월 28일에도 2회 교양강좌에서도 우리나라 최초로 경희대에 '성공학개론' 과목을 처음 개설한 성공컨설팅트인 이내화성공전략연구소 대표를 강사로 초청한 특강이 펼쳐졌다. 대학은 물론 삼성, 현대 등 대기업에서 연간 500


회 이상의 강의와 방송을 할 정도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이내화 대표는 이날 교직원을 대상으로 '당신이 하는 일에 미쳐라'라는 주제로 성공과 도전의식에 대한 강연이 펼쳐졌다. 강좌를 끝난 뒤 한 교직원은 "사실 이런 강좌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면서, "직장은 물론 인생에서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만족해했다. 총무팀 관계자는 "이제 2회째인데 교직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면서, "대회 심혈을 기울여 특강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있는 만큼 교직원들의 많은 참석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암병원 교직원 교양강좌는 앞으로 각 주제별로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5시 8층 대강당에서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병원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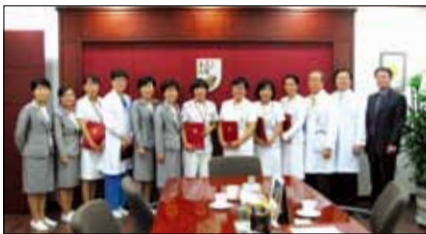
세상의 소중한 생명들을 위한 작은 파티




세상에 조금 빠른 출발을 한 소중한 생명들을 위한 작은 파티가 고대병원에서 열렸다.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신생아중환자실은 10월 26일 오후 2시 병원 중회의실에서 '제3회 이른둥이 사랑이야기'를 마련했다. 이 행사는 안암병원에서 이른

둥이로 태어나 치료받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그동안 병원에서 가족과 같이 보살펴 주었던 의료진과 함께 재회하는 시간이다. 이날 소아청소년과와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은 발육상태 및 발달검사, 예방접종을 비롯한 영양 및 이유식 상담,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RSV)감염 예방 교육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아기자기한 선물들도 준비했다. 아이들과 가족들도 시종 밝은 표정으로 행사내내 함께했다. 아이들은 언제 아팠냐는 듯 노래와 율동 등 장기자랑을 뽐내며 긴 강함을 과시했다. 

간호부 환경개선 우수부서 표창




간호부는 11월 8일(월) 오전 9시 병원장실에서 「2010 간호부 환경개선활동」 심사에서 고득점을 받은 우수 부서에 대해 표창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심사는 지난 10월 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2일에 걸쳐 병동 및 외래·특수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병동(52병동, 55병동, 75병동) 및 외래·특수

부문(내과중환자실, 인공신장실, 치과 외래) 총 6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하였다. 우수 부서에는 상장과 함께 부상이 주어졌다. 이은숙 간호부장은 “각 부서원 모두가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어 병원이미지가 한층 밝아졌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선정된 부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안암병원 간호부는 앞으로 보다 나은 쾌적한 병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병원을 이용하는 외부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병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활동을 분기별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당뇨센터, 환자를 위한 공개강좌 성료




안암병원 당뇨센터(센터장 최동섭)는 11월 12일 병원 8층 대강당에서 당뇨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 최동섭 당뇨센터장은 혈당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김신곤 교수는 약물요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김주연 영양사, 이진혁 운동처

방사의 올바른 영양관리와 운동요법에 대한 강좌, 김신곤 교수와 환자와의 질의응답이 계속됐다. 특히, 성악 특별공연과 함께 치료 중인 환자가 직접 연자로 나서 성공적인 혈당관리 사례를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모든 참석자에게는 무료 혈당, 당화혈색소, 혈압 측정과 함께 상담이 이루어졌다. 한편, 고려대 안암병원 당뇨센터는 정기적인 공개강좌 및 당뇨교실을 통해 당뇨 예방 및 치료에 앞장서고 있으며, 당뇨교육 확대 등 범국민 당뇨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병원에서 펼쳐진 희망 + 감동 뮤지컬 '음치(音治)'



안암병원에서 감동의 뮤지컬 공연이 열렸다. 11월 8일 고려대 안암병원 8층 대강당에서 열린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뮤지컬 음치(音治)' 공연이 성황리에 마쳤다. '뮤지컬 음치(音治)'는 음악 음(音)에 치유할 치(治)를 사용해 '음악으로 치유한다'는 의미로,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완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국노바티스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 공연에는 뮤지컬 '명성황후'의 히로인 이자 명지대학교 뮤지컬학과 교수인 이태원 씨가 공연에 직접 참여했으며, 명지대 뮤지컬학과 학생들도 함께 참여했다. 사회는 뮤지컬 배우 김호영, 연출은 한국예술원 방정식 교수가 담당했다. 음치 공연은 '맘마미야', '페임' 등 유명 뮤지컬의 곡들을 재구성한 갈라 콘서트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피날레를 장식한 뮤지컬 맘마미아의 '댄싱퀸'과 렌트의 '시즌 오브 러브'를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 유방암 환우를 비롯한 환자들, 그리고 한국노바티스 직원이 직접 참여해 열정과 화합의 무대를 선보였다. 이들은 공연 전에 한국예술원 방정식 교수로부터 뮤지컬 연기를 직접 사사 받았다. 

온라인 및 모바일 고객유치에 팔 걷은, 高大의료원

초스피드 원스탑 진료예약 및 첨단 온라인증명발급 서비스 개시  
영.중.일 다국어 사이트 및 건강상담 강화, 모바일서비스로 고객과 더 가까이...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은 11월 16일 오전 7시, 본부회의실에서 손창성 의무부총장, 김창덕 안암병원장, 김우경 구로병원장, 조태형 대외협력실장, 김병균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의료원 홈페이지 새단장 개통식'을 거행했다. 의료원과 안암, 구로, 안산 등 각 병원 별로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는 고려대의료원 비전선포식 일자에 맞춰 가동한 것으로, 1년여의 기획 및 제작기간이 소요된 만큼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새로 개통한 고려대의료원 홈페이지(www.kumc.or.kr)는 우선 고객의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큰 중점을 뒀다. 그 중 백미는 진료예약 부분이다. 마치 영화예매를 연상케 하는 원스탑 진료예약코너는 기존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예약을 간단하게 바꿨고, 대리예약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고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됐던 입퇴원확인서와 같은 증명서를 웹에서 간단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현재 의료계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서비스 중 보안과 편리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게 만들어 졌다는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다. 모바일예약서비스를 개설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고려대의료원 홈페이지는,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의 메뉴를 단순화시켜, 진료예약은 물론, 병원소식, 의료진 진료정보, 병원소개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 외, ▲상세한 예약 정보와 조회와 취소를 하나의 페이지에서 완료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 전문의 상담코너 ▲의료진 건강강좌 서비스 ▲모든 페이지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 ▲모든 의료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소개 서비스 ▲의학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정보 소개 서비스 등의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 환자 및 보호자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고려대의료원 홈페이지는 난독증, 학습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노인,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웹표준과 웹접근성 향상 측면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썼다. 또한, 의료원 및 3개병원 사이트에 쓰인 사진과 영상 등은 각 기관의 비전을 표현하는 ▲연구중심병원 ▲우수의료인 육성 ▲첨단의료환경 조성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 하는 이미지를 업선해서 사용했다.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최근 고농축 스피드 성장을 지속해온 고려대의료원은 국내는 물론 해외환자를 염두에 두고 첨단과 인간을 모토로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해 세상에 내놓게 됐다. 5년만에 완전하게 바꾼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창조적인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라며 새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고려대의료원 홈페이지는 난독증, 학습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노인,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웹표준과 웹접근성 향상 측면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썼다. 또한, 의료원 및 3개병원 사이트에 쓰인 사진과 영상 등은 각 기관의 비전을 표현하는 ▲연구중심병원 ▲우수의료인 육성 ▲첨단의료환경 조성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 하는 이미지를 업선해서 사용했다.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최근 고농축 스피드 성장을 지속해온 고려대의료원은 국내는 물론 해외환자를 염두에 두고 첨단과 인간을 모토로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해 세상에 내놓게 됐다. 5년만에 완전하게 바꾼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창조적인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라며 새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친절리더 칼럼

# 이런 사랑의 약속 어떠세요?

이런 약속 지켜본 적이 있으세요?  
 "언제 한번 저녁이나 함께 해요"  
 "언제 한번 술이나 한잔 하죠?"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입에 붙어버린 말  
 "언제 한번"  
 오늘은 또 몇 번이나 그런 인사를 하셨나요?  
 약속을 하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친구에게, 직장동료에게  
 "언제 한번" 은 오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오늘 저녁약속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이번 주말이 한가한지" 물어 보세요.  
 아니 "지금 만날 수 있겠냐"고 물어보세요.  
 "사랑" 과 "진심" 이 담긴 인사라면  
 "언제 한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겉과 속이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형제는 뜨거운 피를 함께 나누는 사이입니다.  
 연인은 뜨거운 심장을 함께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같이 나는 것이 단 하나 없는데도,  
 언제나 나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쉼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차마 마침표를 찍지 못해 쉼표를 찍을 때도 있구요.  
 쉼표를 찍어야 할 때 마침표를 찍어  
 두고두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쉼표와 마침표를 제대로 찍을 줄 아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빈틈없이 뭉쳐있는 마침표의 단단함에 이끌려  
 후회를 만든 적은 없는지,

오늘은 어제와 같다고 사람들은 늘상 불평을 합니다.  
 만나는 이마다 "뭐~재미있는 일 없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글쎄요, 다 똑같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곤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 똑같은 시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전철의 같은 칸에 타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곤 커피한잔을 마시며 말을 합니다.  
 "뭐~ 재미있는 일 없어요?"  
 "쩍~~~" 내일은 새로운 아침이 올까?

더러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더러는 굳게 닫은 마음의 문에  
 육중한 자물쇠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갈수록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당신의 가슴은 언제나 비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슴이 언제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책을 읽을 때 감명 깊었던 부분을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책모서리를 접어 놓았던 것처럼,  
 누군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 한구  
 석에 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글 | 간호부 53병동 김신희 간호사

## Live 코믹뮤직쇼 '판타스틱'

문화소개

환상적이고, 굉장하고, 멋진 퍼포먼스..



정비소를 운영하는 타악가문과 귀신이 되어 하늘피리를 찾아 떠도는 현악가문이 음악 배틀 한판 을 겨루는 '판타-스틱' 은 타악, 현악, 상모비보잉, 한국전통연희, 마살댄싱 등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국내외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 공연이다. 100% 라이브 퓨전국악으로 박진감과 흥겨움이 가득한 '판타-스틱(Fanta-stick)'을 만나보자.

태초의 하늘은 타악가문의 남자에게는 하늘복을 현악가문의 여자에게는 하늘피리를 내렸다. 그러나, 여자의 질투로 복은 찢어지고 하늘피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 하늘이 내려준 '복' 을 찢은 죄로, 귀신이 되어 떠도는 현악가문 가족이 다시 인간이 되는 길은 단 하나! '100점 음악을 만드는 일!' 그러나 하늘피리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 음악을 만들 수가 없다.

'하늘피리' 를 쟁탈하기 위해 펼쳐지는 Live Music 승부 한 판. 그 속에 싹트는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진다. 



공 연 명 : 판타-스틱(Fanta-Stick)  
 기 간 : 2009. 8.25(화), OPEN RUN  
 시 간 : 화-일 저녁 8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 소 : 대한생명63아트홀 판타-스틱 전용관(467석)  
 관람등급 : 만 4세(48개월) 이상 입장가능  
 러닝타임 : 80분  
 티켓가격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예 매 처 : 인터파크 1544-1555 / 티켓링크 1588-7890  
 문 의 : (주)한화63시티 02)789-5663 (주)해라 02)3143-5959  
 제 작 : (주)해라  
 대관투자 : (주)한화 호텔& 리조트  
 연 출 : 지 윤 성  
 홈페이지 : www.fanta-stick.co.kr, www.63.co.kr

## 청소년 위협하는 '사회 암' 없애려면

기고




암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필자는 요즘 우리 사회의 암이 청소년들에게 퍼질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암은 무엇일까.

암은 다음 4가지 특징으로 정의된다. 우선 클론성이다. 클론(clone)은 복제품을 의미한다. 동일한 성질의 개체만을 만든다는 의미로 다양성과 대비된다. 두 번째로 이형성(dysplasia)이다. 원래의 정상 성질을 잃어버리고 병적인 성질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세번째로 전이(metastasis)다. 원래 있어야 할 곳을 넘어서 몸의 다른 곳까지 퍼진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무제한적 증식(unlimited proliferation)이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존재하는 곳에서 역할수행에 적절하게 증식이 조절된다. 암세포는 조절되지 않은 무제한적 증식으로 덩어리를 만든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가 나름대로 정의한 사회의 암은 다음과 같다. 정상적이지 않은 병적 사고(이형성)를 지니면서 이 사고를 여러 경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전이)함으로써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증식) 다양한 의견들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집단을 형성(클론성)하는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암을 치료할 것인가.  
 먼저 우리 몸의 암 치료 원칙을 살펴보자. 우리 몸에서는 이상 세포들이 만들어지지만 정상 면역기전 속에서 없어진다. 그러므로 면역력 유지가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 면역기능 장애로 이상 세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체내 토양에서 덩어리를 이룬 후 혈관 등으로 통해 온몸으로 퍼지게 된다. 그러므로 암이 발생하면 혈관을 통해 온몸에 퍼지기 전에 초기에 발견해 치료해야 한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사회 어딘가에 암적 성질을 지닌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면역기능에 해당하는 도덕규범 및 법 등을 통해 이들을 교화한다. 그리고 만약 이런 존재들이 집단화해 사회 정체성 유지에 위협을 가하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

그런데 최근의 인터넷 등을 통한 급격한 정보화는 우리 몸에 혈관이 많이 만들어져서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 퍼지기 쉬워진 것과 같은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걱정을 하늘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기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 가장 비근한 예가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정권이다. 독일의 민주적인 바이마르 정부를 무너뜨리고 히틀러 정권을 수립시킨 수단이 바로 당시의 첨단 정보망인 라디오와 신문이었고 이에 앞장선 주역이 청소년들로 구성된 돌격대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과 정보망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사실이 우려스럽다. 불안정한 국내의 상황에서 암적 존재들이 정보망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을 오염시킬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트위터 등 첨단 정보망에 많이 접근하는 감수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해악을 미칠까봐 심히 걱정스럽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일까. 결국은 암세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의 면역력을 기르는 원인적 처방이 첩첩일 것이다. 물론 이 처방은 정책 당국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필자 나름대로는 "청소년에게 역사와 같은 인문학 교육을 강화시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킴으로써 인생의 나침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 

글 | 중앙혈액내과 김병수 교수 외래 | 920-5980

이부서 이사람

# 팔방미인 안암병원 의료진, 세계학계, 의과학, 장기기증 분야 등 다방면에서 활약 펼쳐...

## 정신과 이민수 교수, 국제학회 차기 회장 당선



정신과 이민수 교수가 '환태평양정신의학회(Pacific Rim College of Psychiatrist (PRCP))'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이민수 교수의 이번 차기 회장 당선은 최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14회 환태평양정신의학회 정기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이뤄졌다. 임기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년간이다. 이 교수는 PRCP 부이사장직을 역임하며 세계 각국 간 활발한 정보 및 최신지견 교류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민수 교수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 차기 학회 국내 유치에도 성공하는 등 국내 정신의학분야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2011년부터 2년간 임기가 예정되어 있는 이민수 교수는 "국내외 학회 수장을 두루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정신의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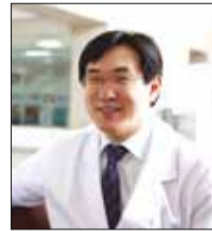
## 핵의학과 최재걸 교수, 교과부장관 표창 수상




국내 손꼽히는 국제통으로 대한민국 핵의학분야 세계화 선도 핵의학과 최재걸 교수가 10월 27일 열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연차대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재걸 교수는 대한핵의학회 정도관리이사과 총무이사를 역임하면서 대한핵의학회를 선진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핵의학검사의 정도관리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핵의학영상기기 정도관리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한핵의학회, 대한기술학회, PET 협의회, 동위원소 협회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감마카메라와 PET/CT의 영상 정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

다. 최 교수는 대한핵의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면서 올해 첫 실시된 ISO 15189 의학시험기관 인증평가를 위한 KOLAS 제도위원으로 참여해 핵의학검사 정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국내 손꼽히는 국제통으로 꼽히는 최재걸 교수는 국내에서의 활동외에도 국제원자력 에너지위원회(IAEA), 보건부(Division of Human Health)에 파견되어 전세계 핵의학 기관, 인력, 장비 등 핵의학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수집 작업을 수행하는 등 대한민국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의료 및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한 일등공신이다.

##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교수(사진)가 지난 10월 30일(토) '2010년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기념행사' 에서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관태 교수는 "이번 수상의 영광을 낳았을 때 고된생활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장기이식센터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장기이식은 장기 기증자의 고귀한 생명나눔 실천을 통해 가능한 일 인 만큼, 이에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했다. 사실, 장기이식은 이미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학적,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의학적으로는 이식면역학의 눈부신 발전과 새로운 이식법이 개발되는 등 이식장기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기증 장기의 심각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여론형성과 장기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대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는 간장, 신장, 심장, 골수, 췌장, 각막, 연골 등 각 전문이식팀이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와 함께 장기이식 및 기증에 관한 상담 및 수술 전후 환자 교육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박관태 교수는 현재 고대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 부소장을 맡아 장기이식 분야에서 맹 활약 하고 있다. 

## 옷깃만 스쳐도 지독한 통증, '복합부위통증' 주의보

高大 장성호 교수팀, 복합부위통증 새 치료법 제시  
적극적 통증유발점관리와 교감신경 차단으로 완치가 가능

초기 통증 간과하다 만성통증, 우울증까지 이어져 걸보기에는 멀쩡해 꾀병으로 오인받기도

의학정보



국내 의료진이 난치성 만성통증중의 하나인 복합부위통증에 대한 새 치료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장성호 교수팀은 주로 산업 재해나 교통사고로 외상을 입은 뒤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 난치성 만성통증중의 하나인 복합부위통증 증후군(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치료로 교감신경차단과 함께 적극적인 통증유발점관리를 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치료법이 주로 약물요법과 신경차단 또는 척수신경자극술 등에 주력한 나머지 가장 효과적인 통증유발점관리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장성호 교수팀이 복합부위통증을 앓고 있는 23세부터 82세의 남녀성인 7명에게 교감신경차단과 각 통증유발부위에 소량의 마취제 또는 진통제를 놓거나, 마사지 등 을 함께 시술한 결과, 7명 모두 통증정도를 측정하는 시각통증척도(VAS:Visual analogue scale)에서 모두 시술전 평균 87.14였던 통증정도가 평균 1.42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기간은 평균 2달, 치료 횟수는 평균 6회에 불과했다.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은 크기는 골절상, 자상에서 작게는 타

박상까지 외상으로 주로 생기기도 하지만 아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환자들은 바람이 불거나 옷깃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시도때도 없이 피부가 화끈거리고 쑤시거나 저리는 듯한 통증이 전신을 엄습하기도 한다. 어떤 환자는 이 고통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하소연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질환은 걸보기에는 멀쩡해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꾀병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증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도 쉽지 않아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초기 통증을 간과하고 그냥 방치할 경우 만성통증으로 이어지거나 심한 통증으로 팔다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잘못된 치료로 인해 약물중독,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까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현재까지 각종 신경차단술과 약물로도 통증이 잘 완화되지 않을 경우 전기자극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는 척수신경자극기 또는 척수약물주입기와 같은 통증조절장치를 시술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극이나 약물주입기 등은 비용이 높은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통증조절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의 보존적 통증조절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척수자극기는 4년마다 배터리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천만원이 넘는 시술비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마취통증의학과 장성호 교수는 "복합부위통증의 원인이 주로 외상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운동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며, "때문에 기존 약물치로나 신경차단과 같은 치료법으로는 근원적인 치료가 어려웠던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교감신경차단과 함께 적극적인 통증유발점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완치가 가능해 치료기간과 비용까지 줄이는 것은 물론 지독한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도움말 | 마취통증의학과 장성호 교수  
외래 | 02)920-5529

